

우리 동네 피부 주치의는 여의도 차앤박피부과



20주년 소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하나 같이 ‘고마움’이었다. 피부 전문가로서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피부하면 차앤박피부과를 기억해 주는 환자를 비롯해 20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임직원까지 ‘고마움’이라는 단어 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권오찬 피부과 전문의다.

인터뷰 당일 중요한 점심 약속이 있다는 노도균 피부과 전문의도 약속 당사자가 처음엔 환자로 대면했던 20년지기라 귀땀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지역 주민과 호흡해 온 피부 주치의의 매 순간 특별한 혹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다. 여의도 차앤박피부과의 브랜딩의 힘은 이런 한결 같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노도균 피부과 전문의



소통방식의 대변혁, 밀레니얼 세대 공감 필요

20년 동안 환자를 만나온 노도균 원장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대공감, 코로나19로 급속도로 빨라진 언택트 시대에 맞춰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제 환자를 만나는 방식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비대면은 기본이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이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다각화된 채널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관련 책임자 채널들을 구독해서 살피며 소통법을 익히는 중이다. 진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피부 환경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만큼 피부 과학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피부 주치의의 소임이라 여긴다.

피부 트러블도 조기 치료가 관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건강한 피부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법에 대한 것인데요. 광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차단제와 피부 활력의 기본요소인 보습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무엇보다 피부염이나 트러블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피부과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가진단하여 한 두개의 여드름을 방임하거나 염증이 더 깊은 이후에 치료를 받는 게 낫다는 카더라 통신을 믿기도 하는데 이러한 발상은 위험하다는 것.

“작은 불씨를 잘 잡으면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트러블도 조기 진화를 했을 때 잡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이나 흉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가성비, 가심비를 모두 잡는 것이지요.”

한결같은 승리, 이제 공존을 이야기 한다.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주변에 피부과도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여의도 차안박피부과는 특별한 날 찾는 곳이 아닌 일상 속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트러블이나 노화로 인한 피부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여의도는 지역 특성상 직장인과 여의도 지역민들의 내원률이 거의 비슷해 부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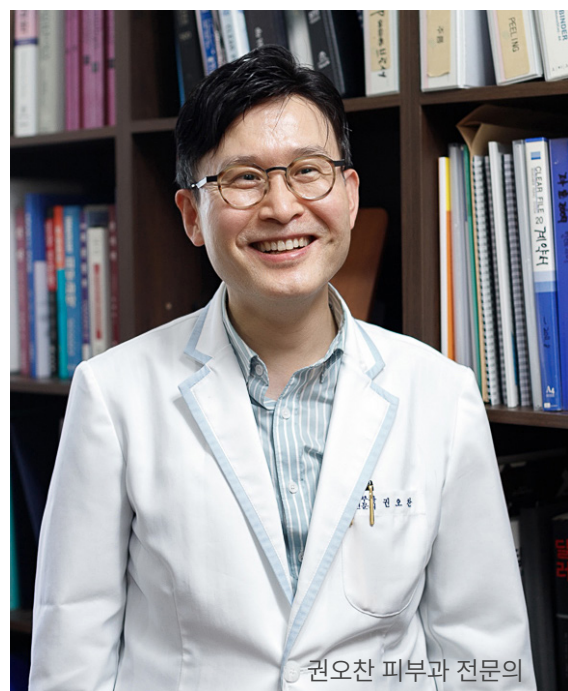
심하지만 한편으로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지속적인 진료 및 관리도 병행되어야 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만연한 과잉진료나 치료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홈케어 중 피부에 오히려 해가 되는 관리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피부 방임도 문제지만 과한 관리나 화장품

의 중복 사용은 백해무익하다는 것. 대부분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실천한 행동이 도리어 피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듯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 또한 빨리 알아 차리는 게 좋다. 그 길라잡이는 바로 피부 전문가의 몫이다.

20년 동안 한 자리, 이 곳 여의도에 자리하면서 그 세월만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피부 궁금증이 있으면 스스로 질문을 주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시절 여드름 환자로 방문했던 환자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일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

코로나19 시대 속 지난 일년 간은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더욱 안부를 챙기며 함께 하는 공존의 힘을 느끼고 있다.

여의도 차안박피부과는 그렇게 이 지역의 피부 주치의로서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늘 한결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



권오찬 피부과 전문의